

意味辨別法으로 測定한 教師像에 관한 一研究

李 學 柱·李 恩 玉*

教 育 學 專 攻

(1985. 4. 30. 접수)

〈요 약〉

本 研究는 大學生이 갖는 教師像을 意味辨別法으로 測定·分析하기 위하여 40쌍의 대칭되는 形容詞問項을 사용하였다. 標集은 서울과 지방에서 4개 대학을 선정, 모두 579명으로부터 資料를 蒐集하였고, 資料는 全體, 性別, 系列別로 平均, 標準偏差를 算出하고, t-檢證 및 要因分析 하였으며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全體적으로 大學生이 갖는 教師像은 肯定的이나, 그 지지정도는 多少 中立의이어서 鮮明하지 않다. 部分的으로 活動, 力能次元에서는 否定的인 경향도 나타내고 있다. 가장 肯定的인 반응을 보인 문항은 '중요하다', '自尊心이 강하다', '精神的', '깨끗하다' 등이었고, 가장 否定的인 반응을 보인 문항은 '소심하다', '보수적이다', '방어적', '고지식하다' 등이었다.

2. 大學生의 性別에 따른 教師像은 男學生이 女學生에 비해 훨씬 强하게 肯定的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경향은 '순진하다', '깨끗하다', '올다', '똑똑하다', '헌신적이다'라는 문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3. 大學生의 系列別에 따른 教師像은 非師範系가 師範系 學生에 비해 다소 肯定的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경향은 '깨끗하다', '새롭다', '의욕적'이라는 문항에서 나타나고 있다.

4. 大學生이 갖는 教師像의 要因構造는 "進取性"과 "誠實性"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진취성에는 부정적인 경향을, 성실성에는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以上の 結果를 토대로 볼때, 大學生에게 비쳐진 教師의 이미지는 全般的으로는 肯定的이나, 倫理·道德의 側面에서는 보다 肯定的 方向에서, 活動·力能面에서는 多少 否定的인 方向에서 知覺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男學生이나 非師範系 學生보다는 女學生, 師範系 學生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漸增하고 있는 教職의 女性化 추세에 비추어 現行의 師範·教職教育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對策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An Exploratory Study on College Students' Image on Teacher Measured by S. D. Technique

Lee, Hak-Joo · Lee, Eun-Ok

Major in Education

(Received April 30, 1985)

〈Abstrac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measure college students' image on "teacher", and to determine the factor structure of the image. This study used a semantic differential scale that was constructed with 40 bipolar adjective items. The scale was administered to 579 college students.

* 蔚山大學校 講師, 心理學

Mean scores were computed for every adjective pair for the male group, the female group, the teacher-training course students, non-teacher-training course students and the combined group. This analysis showed a tendency that

1) the college students, generally, had positive images on "teacher". Only on 7 items, they showed negative tendencies such as "narrow-minded," "conservative", "defensive", "simple-minded" etc. The most positive responses were "important", "self-respectful", "spiritual", "clean" ect.

2) Significance tests for the sex difference showed that the male students had more strongly positive images on 16 items and more negative images on 1 item on teacher than the female students. That is, the male students' images on "teacher" were more inclined toward "pure", "clean", "right", "clever", "self-sacrificing", and less toward "talkative".

3) Significance tests for the course difference showed that the non-teacher-training course students had more positive images on 7 items and more negative images on 2 items on teacher than the teacher-training course students. That is, the non-teacher-training course students' images on "teacher" were more inclined toward "clean", "new", "willingly" and less toward "difficult", "talkative".

And the data were subjected to factor analysis. Using a criterion of eigenvalue greater than 1, followed by the varimax rotation, 9 factors were selected. The common variance of 56.8% in the meaning or image of "teacher" were calculated for all these 9 factors. Items that had factor score coefficient of .10 or greater on a single factor were arbitrarily selected to represent that factor. The 9 factors have been named "Progressiveness", "Sincerity", "Nobility", "Self-Fulfillment", "Sagacity", "Quickness", "Complexity", "Faithfulness".

Among the factors, the 1st factor (Progressiveness) accounted for 25.6% of the common variance, 55% of the common variance accounted for 9 factors. This implies that "Progressiveness" dimension is the most important for assessment of the "teacher" image. But the students showed negative tendency in 1st dimension. The 2nd factor (Sincerity) accounted for 7.7% of the common variance, 14.2% of the common variance accounted for 9 factors. In 2nd dimension, the students showed positive tendency. The results imply that students have image on "teacher" who was "negative", "narrow-minded", "conservative", "defensive", "simple-minded", "weak", but "self-sacrificing", "sincere", "responsible", "clean", "believable".

I. 研究 問題

本 研究은 大學生이 갖는 教師像을 意味辨別法⁽¹⁾으로 測定·分析하고로써 보다 現實的이고 合理的인 教師像 樹立을 위한 基礎的 資料를 마련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公式的인 教育에서 教師는, 배우는 主體로서의 學生과 이 兩者를 매개하는 教育內容과 함께 떼어 놓을수 없는 必要條件이 된다. "그 教師에 그 學校(As is the teacher, so is the school)"라는 Charles Brooks (Brookerber, 1956)의 말처럼 教育의 成敗는 教師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教育的 作用은 教師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教師가 教育의 成敗에 決定的인 役割을 하는 存在임에는 틀림없다 하더라도 教育의 궁극적

(1) 意味辨別法은 C. E. Osgood 등이 발전시킨 心理測定の 한 方法으로 여러가지 事物·人物·思想等에 관한 概念의 意味를 意味空間(semantic space)속에서 測定하려는 것이다. 즉 한 개념의 의미를 兩極의으로 對比되는 形容詞에 의해 測定하고, 그 結果를 方向·距離·強度를 갖는 意味空間에 布置시킬 수 있다는 假定이 뒷받침되고 있다. (Osgood, C. E. et al. 1957)

목표는 그 對象인 學生에게서 실제로 일어나기를 期待하는 變化인 것이고, 따라서 教師의 役割은 對象 學生과의 相互關係 乃至는 그들의 기대를 떠나서는 適切히 論議할 수 없는 것임이 分明해진다. 제 아무리 有能한 教師라 할지라도 가장 基本的인 것에서 學生으로부터 否定的인 評價를 받는다면, 이미 그의 役割은 充分히 발휘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教師의 役割을 논할 때 어느 特定 個人을 지적함이 없이 一般的으로 教師라는 地位에 要求하는 期待를 論議하는 수가 많다. 왜냐하면 어떤 社會的 地位를 차지한 個人은 그 地位에 부과된 責任, 義務, 權限——即, 文化, 社會(制度)가 規定한 規範의 期待에 따라 行動해야 할 것이 要求되기 때문이다. (林容憲, 1971), 흔히 우리의 경우 敎職을 聖職의 하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는 觀點은 주로 文化的으로 규정된 것이다. 교사는 추상한 行동을 해서는 안되고, 몸가짐을 端整히 해야하며, 他人에게 模範이 되어야한다는 등의 規範的 期待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敎職을 專門職으로 보는 觀點도 있는데, 이는 주로 社會·制度的으로 규정되는 役割期待에 의한 것이다. 教師는 가르치는 學科目에 관한 專門的 知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學生을 理解하고 學習效果를 높일 수 있는 知識과 技術 乃至는 이를 評價 할 수 있는 能力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등을 要求하는 役割期待는 바로 制度的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러한 教師의 役割에 대한 一般的 期待는 各 文化圈에 따라 다르며, 또한 같은 文化圈에서도 時代에 따라 다르다. (鄒宇鉉, 1982). 예를들어 우리 문화권에서 예전에는 '君師父一體'라 하여 教師에 대한 期待가 임금이나 父母의 그것과 同等했었으나, 傳統的 價值觀이 瓦解되어가고있는 現在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勿論 傳統社會에서의 教師에 대한 期待가, 價值觀이 달라진 現代의 機械文明社會에서 그대로 適用되기를 바라는 것은 無理일 것이다. 왜냐하면 過去의 小規模 敎育機關에서는 教師와 學生이 全 人格으로 접촉할 機會가 많았고 그런가운데 教師의 位置는 相對的으로 높게 評價될수 있었겠지만, 現代의 大型化한 敎育狀況下에서는 그것을 期待 할 수 없기 때문이다. 教師와 學生의 個人的인 접촉은 물론하고, 學生의 이름이나 얼굴조차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教師가 學生에게 주는 印象은 자칫 專門的 知識 傳達者로서의 役割만 強調되기 쉽고, 教師의 位置 또한 相對的으로 낮아질 可能性은 훨씬 증가하리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이렇게 時代의 變遷에 따른 教師의 役割 變化를 별다른 거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傳統的인 입장을 固守하는 이들 또한 많다. 즉, 教師의 役割을 단순히 知識 傳達만 하는 職業人(經師)으로서의 義務遂行에 그치지 않고, 學生들을 人格의으로도 成熟케하는 人師로서 奉仕할 것 을 要求하고 있다. (吳天錫, 1972). 崔正蕪(1970)도 敎員 效率性 基準에 관한 많은 研究에서, 훌륭한 教師를 評價하는 기준은 무엇보다도 教師 自身의 사람됨과 內的인 役割 知覺이 嚴嚴한 準據가 될수 있다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教師들은 自己 役割에 대하여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傳統 社會에서와 같은 精神的·身分的 優待는 커녕, 物質的으로도 合當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狀況에서(黃應淵, 1983) 傳統 文化에 의해 규정된 理想的 教師像과 職業人으로서의 現實的인 壓力은 그들을 참사리 이 문제로부터 헤어나오도록 許容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教師들의 役割 葛藤은, 그들이 敎育에서 발휘하는 重大한 任務를 생각해서라도 어떠한 方法으로든 時急히 解消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現實的이며, 많은 사람으로부터 共感을 얻을수 있는 새로운 教師像을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現代의이며 合理的인 教師像은 客觀的인 資料를 土臺로 樹立되는 것이 妥當하다고 하겠다.

一般的으로 우리는 學校教師를 '선생'이라고 부른다. 現實的으로 우리 社會에서 쓰이고 있는 선생이라는 말의 意味는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本 研究에서는 大學生들이 흔히 사용하는 '선생'의 의미를 중심으로, 그들에게 비쳐진 선생의 이미지를 教師의 그것과 同一하게 취급하였다.

本 研究에서는 教師의 이미지를 測定하기 위해 意味辨別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比較的 많은 수의 形容詞 問項을 사용함으로써 教師의 이미지를 多角的으로 測定·分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對象의 오랜 經驗의 累積을 週廻 一般화된 이미지를 측정 할 수 있으며, 또한 비유적 形容詞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深層的인 이미지를 측정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本 研究에서 具體的으로 밝혀 보고자하는 問題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大學生이 갖는 現實的인 教師像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가?

둘째로, 性別에 따라 男·女大學生이 갖는 教師像에는 差異가 있는가?

셋째로, 系列에 따라 師範系 學生과 非 師範系 學生이 갖는 教師像에는 差異가 있는가?

네째로, 大學生이 갖는 教師像의 要因 構造는 어떻게 이루어져있으며, 무슨 특징을 지니는가?

II. 研究 方法

1. 道 具

本 研究에서 사용한 40雙의 形容詞 意味辨別尺度는 先行研究(朴慶淑, 1974)에서 作成한 것을 그대로 活用하였다. 이는 本 研究 結果와 先行 研究結果와의 可比較性을 높이기 위한 意圖에서였다. 先行研究에 의하면, 이 40雙의 形容詞 尺度를 作成하기 위해 두 段階의 節次가 이루어졌다. 먼저, 教師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形容詞 選定을 위해 韓國教育開發院의 研究員 21名에게 “선생”이라는 單語에 自由聯想케 하여 그중 많이 나타난 21雙의 形容詞가 選擇되었다. 다음으로는, 張東煥(1964)의 “韓國語의 意味論的 構造에 관한 研究”에서 提示된 韓國語의 意味次元(semantic dimension) 6個 要因中 主要 4個 要因에서 0.5 以上の 높은 負荷量을 갖는 形容詞 24雙이 選定되었다. 그 具體的 內容은 評價的 要因(evaluation factor)에서 12雙, 力能 要因(potency factor)에서 3雙, 活動性 要因(activity factor)에서 6雙, 精神의—思辨的 要因(speculative factor)에서 3雙이었다. 그러나 以上の 두 段階에서 選定된 形容詞中 5雙은 서로 一致하였으므로, 결국 最終的으로 선정된 것은 40雙이었다. (表-1 참조)

〈表-1〉 本 研究에서 使用한 形容詞

형용사 문항	호오도점수	비 고	형용사 문항	호오도점수	비 고
1. 가깝다—멀다*		평가적요인	21. 빠르다—느리다	-1.68	활동성요인
2. 순진하다—불순하다	4.29-	"	22. 강하다—약하다*	4.66-1.77	"
3. 깨끗하다—더럽다	-1.06	"	23. 새롭다—낡다		"
4. 좋다—나쁘다*		"	24. 활발하다—둔하다	4.79-1.54	"
5. 옳다—그르다		"	25. 현실적이다—이기적이다	4.04-	자유 연상 결 과
6. 부드럽다—거칠다*	4.88-1.63	"	26. 성실하다—불성실하다	5.27-	"
7. 고맙다—고맙지않다		"	27. 책임감이있다—무책임하다		"
8. 밝다—어둡다	4.73-	"	28. 말이많다—말이적다		"
9. 귀하다—천하다*	- .67	"	29. 그림자—지점다		"
10. 중요하다—중요하지않다		"	30. 만족스러운—불만스러운 생활을 한다—생활을 한다		"
11. 평범하다—이상하다	3.71-	"	31. 유능하다—무능하다	5.09- .94	"
12. 진취적이다—보수적이다	4.94-2.65	"	32. 친절하다—불친절하다	5.10-1.05	"
13. 공격적—방어적	2.79-	역능요인	33. 대범하다—소심하다	4.38-2.20	"
14. 똑똑하다—어리석다	4.76-1.38	"	34. 양심적—비양심적	5.26-	"
15. 적극적—소극적	4.36-1.87	"	35. 의욕적—체념적		"
16. 정신적—육체적		정신적— 사변적요인	36. 자존심이강하다—자존심이 없다		"
17. 복잡하다—간단하다		"	37. 부유하다—가난하다		"
18. 어렵다—쉽다		"	38. 융통성이있다—고지식하다		"
19. 이르다—늦다		활동성요인	39. 용감하다—비겁하다	4.98-	"
20. 날카롭다—무디다	2.49-2.06	"	40. 믿을수있다—믿을수없다		"

* 自由聯想結果와 일치하는 形容詞群

** 윤 호운(1970)이 작성한 好惡度測定 形容詞檢目表에서의 好惡度 水準을 나타낸 것임, 왼쪽 것은 왼쪽의 形容詞好惡度 點數를 나타내고, 오른쪽 것은 오른쪽의 形容詞好惡度 點數임, 最高點은 5.52이고 最下點은 0.18임.

이렇게 作成된 意味辨別尺은 5點 尺度로 하였으며, 尺度의 點數는 <表-1>에 있는 各雙의 形容詞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1점에서 5점까지 配點하였는데, 指示文은 다음과 같았다.

이 척도에는 당신이 “선생”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서로 반대되는 40쌍의 形容사가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선생”에 대하여 다음의 낱말들과 연결시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아래 기입 요령으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 결과는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학술적 연구에 활용될 것이고, 또한 무기명으로 실시하는 것이오니, 한 낱말 한 낱말을 차분히 읽어 가시며 여러분의 의견을 해당되는 칸에 V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입요령

예를 들면, 이 척도 처음에 “가깝다—-----멀다”라는 形容사가 있습니다. 평소 여러분이 선생을 가깝게 느끼시면 “가깝다” 에, 멀게 느끼시면 “멀다” 에, 그리고 별로 가깝게도 멀게도 느끼지 않으면 가운데 칸에, 그 느껴진 정도에 따라 V표를 하여 주십시오.

선생이	아주 가깝게 느껴지면	가깝다	V	-----	멀다
	약간 가깝게 느껴지면		V	-----	
	가깝게도 멀게도 느끼지 않으면		V	-----	
	약간 멀게 느껴지면		V	-----	
	아주 멀게 느껴지면		V	-----	

2. 擧集

本 研究는 서울과 地方에서 各各 綜合大學과 單科大學 1個校씩 모두 4個 大學(校) 學生을 對象으로 하였다. 이는 선생에 대한 過去 經驗이 可能的 한 異質의인 集團을 고르기 위한 意圖에서였다. 實際로 蒐集·分析된 사례수는 모두 579名으로서, 男學生과 非師範系가 各 303名, 女學生과 師範系(敎職課程履修者포함)가 各 276名이었다.

3. 資料의 蒐集 및 處理

資料의 蒐集은 1982年 5月 10日부터 24日까지 2주간에 걸쳐 對象學校에 의뢰하여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자료의 有用性이 검토된 다음 統計 處理가 되었다. 5段階尺으로 된 各 形容詞 問項은 肯定的인 것으로부터 否定的인 것으로 1에서 부터 5까지 配點되었으므로, 點數가 많을수록 否定的인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資料의 分析은 서울대와 연세대의 컴퓨터를 利用 SPSS⁽²⁾에 의해 平均, 標準偏差를 算出하였고, t-檢證 및 Kaiser의 varimax rotation에 의한 要因分析(factor analysis)을 實施하였다.

III. 結果의 分析 및 解釋

1. 尺度別 反應의 一般의 傾向

40雙의 形容詞에 대한 大學生 579名의 全體 反應을 보면 <表-2>와 <圖表-1>에서 처럼 全般적으로 肯定的인 方向이고, 極端의이 아닌 中道의인 경향을 띄고 있다. 즉, 5단계척에서 중간점이 되는 3.0점을 기준으로 할때 평균 2.9점 이하의 문항이 29개이고, 平均 3.1점 이상의 문항이 6개로서 肯定的인 反應傾向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具體的으로 點數級間別 問項分佈를 보면 平均點數 1.1~2.0에는 4個의 문항이, 平均點數 2.1~3.0에는 29個, 平均點數 3.1~4.0에는 7개, 平均點數 4.1~5.0에는 단 한개의 문항도 없어 全體 問項 90%에 해당하는 36문항이 尺度의 中央 部分인 2.0~4.0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35개 문항의 平均은 尺度의 中間點으로부터 統計的으로 意義있는 差를 나타내고 있다(表-2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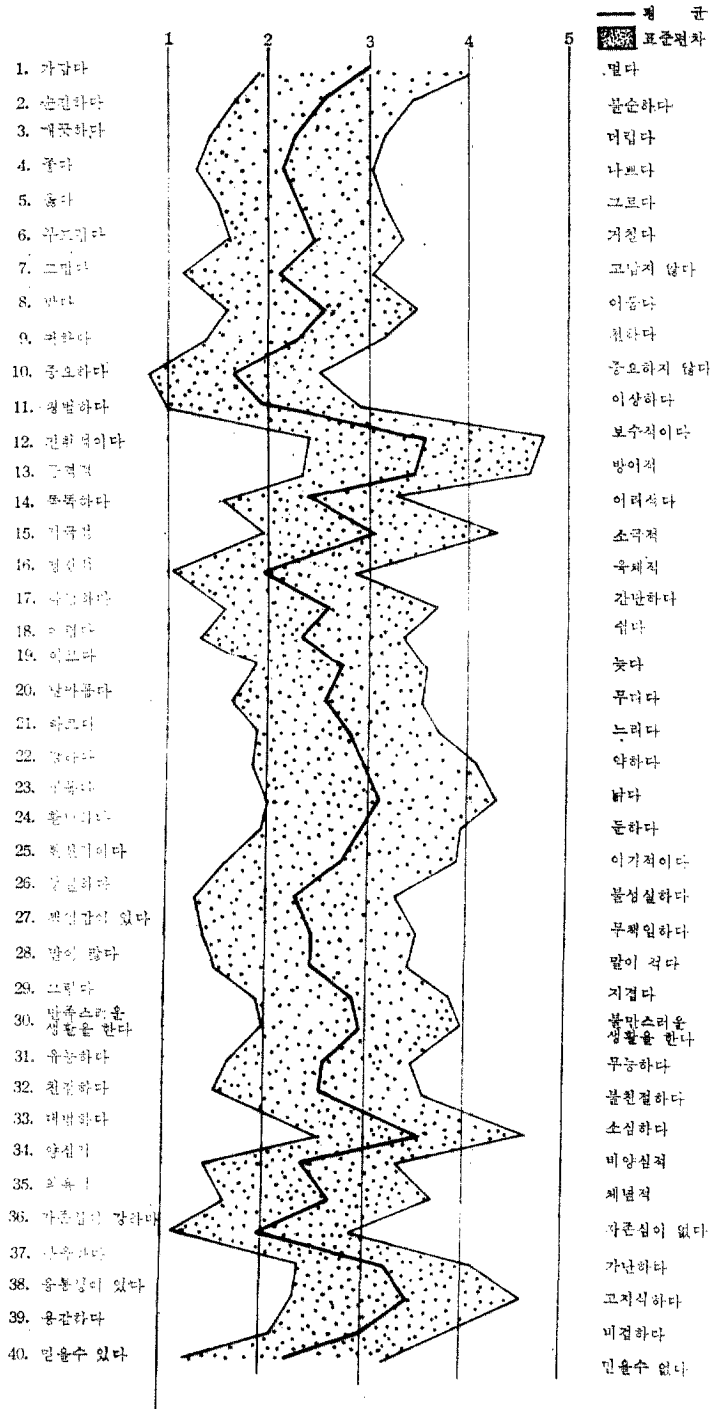
(2) N.H.Nie, et al.,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nd ed., (New York:McGraw-Hill Book Co., 1975).

〈表-2〉 問項別 反應傾向

문항 번호	문 항	전				성				별				계				열				t
		N=579				남 N=303		여 N=276		t	사범계 N=276		비사범계 N=303		t							
		M	SD	중간점 과의차	t	M	SD	M	SD		M	SD	M	SD								
1	가깝다 -멀다	2.86	1.09	-0.14	2.80**	2.87	1.13	2.85	1.05		2.84	1.12	2.88	1.07								
2	순길하다 -불순하다	2.53	0.86	-0.47	11.75**	2.43	0.87	2.64	0.83	3.11**	2.57	0.81	2.50	0.90								
3	깨끗하다 -더럽다	2.26	0.86	-0.74	18.50**	2.11	0.86	2.42	0.82	4.34**	2.34	0.85	2.18	0.85	2.24							
4	좋다 -나쁘다	2.18	0.89	-0.82	20.50**	2.13	0.87	2.22	0.91		2.19	0.96	2.16	0.89								
5	올다 -그르다	2.27	0.85	-0.73	18.25**	2.18	0.88	2.37	0.81	2.67**	2.32	0.82	2.23	0.88								
6	부드럽다 -거칠다	2.49	0.88	-0.51	12.75**	2.45	0.92	2.54	0.81		2.50	0.83	2.49	0.91								
7	고맙다 -고맙지않다	2.10	0.98	-0.90	24.50**	2.06	0.96	2.16	1.00		2.10	0.96	2.11	1.00								
8	밝다 -어둡다	2.51	0.98	-0.49	12.25**	2.45	1.01	2.58	0.95		2.53	0.97	2.50	0.99								
9	귀하다 -천하다	2.26	0.90	-0.94	18.50**	2.23	0.93	2.29	0.86		2.27	0.88	2.25	0.92								
10	중요하다 -중요하지않다	1.62	0.84	-1.38	46.00**	1.61	0.83	1.62	0.85		1.59	0.87	1.64	0.81								
11	평범하다 -이상하다	1.99	0.94	-1.01	25.25**	2.05	0.95	1.92	0.92		1.97	0.93	2.01	0.94								
12	진취적이다 -보수적이다	3.53	1.17	+0.53	10.60**	3.37	1.23	3.70	1.09	3.33**	3.67	1.12	3.39	1.21	2.89**							
13	공격적 -방어적	3.47	1.14	+0.47	9.40**	3.42	1.17	3.51	1.09		3.57	1.09	3.37	1.17	2.11							
14	똑똑하다 -어리석다	2.36	0.86	-0.64	16.00**	2.29	0.82	2.43	0.89	2.03	2.33	0.88	2.33	0.83								
15	적극적 -소극적	3.06	1.18	+0.06	1.20	2.97	1.20	3.17	1.14	1.98	3.09	1.16	3.04	1.19								
16	정신적 -육체적	1.99	0.91	-1.01	25.25**	1.94	0.89	2.04	0.94		1.97	0.94	2.01	0.89								
17	복잡하다 -간단하다	2.56	1.04	-0.44	11.00**	2.48	1.00	2.64	1.08		2.48	1.04	2.62	1.04								
18	어렵다 -쉽다	2.31	1.02	-0.69	17.25**	2.33	1.02	2.30	1.01		2.19	0.97	2.43	1.05	2.86**							
19	이르다 -늦다	2.79	0.84	-0.21	7.00**	2.73	0.91	2.86	0.76		2.86	0.80	2.73	0.87								
20	날카롭다 -무디다	2.53	0.93	-0.47	11.75**	2.52	0.92	2.54	0.94		2.58	0.97	2.49	0.90								
21	빠르다 -느리다	2.89	0.90	-0.11	2.75**	2.84	0.89	2.93	0.91		2.95	0.88	2.83	0.91								
22	강하다 -약하다	2.93	1.12	-0.07	1.40	2.93	1.13	2.92	1.12		2.93	1.13	2.92	1.12								
23	재능다 -압다	3.10	1.14	+0.10	2.00*	2.84	1.13	3.38	1.08	5.96**	3.26	1.11	2.95	1.15	3.26**							
24	활발하다 -둔하다	2.93	1.01	-0.07	1.75	2.87	1.02	2.99	1.01		2.93	1.00	2.92	1.03								
25	현신적이다 -이기적이다	2.73	1.14	-0.27	5.40**	2.63	1.13	2.86	1.15	2.51*	2.71	1.15	2.76	1.14								
26	성실하다 -불성실하다	2.30	1.00	-0.70	17.50**	2.25	0.96	2.35	1.05		2.32	1.05	2.30	0.96								
27	책임감있다 -무책임하다	2.44	1.08	-0.56	14.00**	2.39	1.04	2.51	1.12		2.45	1.12	2.43	1.04								
28	말이 많다 -말이 적다	2.44	0.97	-0.56	14.00**	2.61	0.99	2.26	0.96	4.50**	2.32	0.92	2.56	1.07	2.99**							
29	그렇다 -지겹다	2.88	0.97	-0.12	3.00**	2.83	0.99	2.95	0.95		2.91	0.94	2.86	1.00								
30	만족스러운 생활한다 -불만스러운 생활한다	2.99	1.02	-0.01	0.25	2.90	1.02	3.08	1.01	2.16*	3.05	1.00	2.93	1.04								
31	유능하다 -무능하다	2.56	0.92	-0.44	11.00**	2.43	0.93	2.71	0.89	3.89**	2.62	0.88	2.51	0.96								
32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2.55	1.24	-0.45	11.25**	2.47	1.08	2.64	0.98	2.05*	2.58	0.99	2.53	1.08								
33	대범하다 -소심하다	3.54	1.04	+0.54	13.50**	3.41	1.04	3.67	1.01	3.01**	3.57	1.05	3.50	1.03								
34	양심적 -미양심적	2.36	0.98	-0.64	16.00**	2.28	0.98	2.46	0.96	2.26*	2.40	0.97	2.33	0.98								
35	의욕적 -체념적	2.66	1.08	-0.34	8.50**	2.46	1.04	2.88	1.08	4.75**	2.76	1.11	2.57	1.05	2.05*							
36	자존심이 강하다 -자존심이 없다	1.91	0.91	-1.09	27.25**	1.86	0.95	1.96	0.87		1.97	0.90	1.85	0.92								
37	부유하다 -가난하다	3.16	0.87	+0.16	4.00**	3.06	0.86	3.27	0.88	2.99**	3.25	0.87	3.07	0.87	2.50*							
38	운동성이 있다 -고지식하다	3.45	1.16	+0.45	9.00**	3.29	1.21	3.62	1.09	3.43**	3.58	1.10	3.34	1.21	2.48*							
39	용감하다 -미겁하다	2.99	0.85	-0.01	0.25	2.98	0.86	3.00	0.85		3.01	0.83	2.97	0.87								
40	민중수있다 -민중수없다	2.25	1.00	-0.75	18.75**	2.19	1.01	2.83	0.99		2.27	0.99	2.24	1.01								

*p<.05, **p<.01

〈圖表—1〉 問項別 平均과 標準偏差의 Profile



各 問項別 平均 點數와 尺度의 中間點(3.0)과의 差의 有意度를 檢證한 結果에 의하면, 有意한 差가 없는 것은 平均點數가 2.90~3.06인 問項으로서, “적극적—소극적”, “강하다—약하다”, “활발하다—둔하다”, “만족스러운 생활을 한다—불만스러운 생활을 한다”, “융감하다—비겁하다”의 5個 問項뿐이었고, 기타의 것은 모두 有意한 差가 있었다. 여기에서 一方向의 差는 肯定的인 教師像으로, 十方向의 差는 否定的인 教師像으로 해석된다.

全體的으로 보아 가장 肯定的인 反應을 보인 문항은 “중요하다”, “자존심이 강하다”, “정신적”, “平凡하다”, “믿을수 있다”, “깨끗하다”, “귀하다”, “옳다”, “성실하다”등의 33個 問項이었고, 반면에 否定的인 反應을 보인 問項은 “소심하다”, “보수적이다”, “방어적”, “고지식하다”, “가난하다”, “납다”, “소극적”의 7個 問項이었다. 가장 肯定的으로 反應한 문항과, 부정적으로 反應한 問項 各 7個를 積수순으로 정리하면 <表-3>과 같다.

<表-3> 가장 肯定的인 問項과, 否定的인 問項

긍정적인 문항	평 균	부정적인 문항	평 균
10. 중요하다—중요하지 않다	1.62	33. 대범하다—소심하다	3.54
36. 자존심이강하다—자존심이 없다	1.91	12. 권취적이다—보수적이다	3.53
16. 정신적 —육체적	1.99	13. 공격적 —방어적	3.47
11. 평범하다 —이상하다	1.99	38. 융통성이있다—고지식하다	3.45
17. 고맙다 —고맙지 않다	2.10	37. 부유하다 —가난하다	3.16
9. 믿을수있다—믿을수 없다	2.25	23. 새롭다 —납다	3.10
3. 깨끗하다 —더럽다	2.26	15. 적극적 —소극적	3.06

한편 各 問項別 男·女學生間의 差의 有意度를 檢證한 結果, 17個 問項에서 有意한 差를 보였다. 이 17個 問項中 16個 問項에서 男學生이 女學生 보다 ‘선생’을 더욱 肯定的인 方向에서 知覺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男學生이 女學生 보다 ‘선생’을 더 “순진하다”, “깨끗하다”, “옳다”, “똑똑하다”, “적극적이다”, “새롭다”, “현신적이다”, “만족스러운 생활을 한다”, “유능하다”, “친절하다”, “양심적이다”, “의욕적”이라고 보는 반면에, 女學生은 男學生보다 선생을 “말이 많다”, “보수적”, “소극적”, “납다”, “불만스러운 생활을 한다”, “소심하다”, “가난하다”, “고지식하다”고 하여 否定的으로 보는 반응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各 問項別로 師範系와 非師範系間의 差의 有意度를 檢證한 結果에서는 9個 問項에서 有意한 差를 보였다. 9個 問項中 7個 問項에서 非師範系가 師範系보다 ‘선생’을 더욱 肯定的으로 知覺하고 있으며, 나머지 2個 問項에서 師範系가 非師範系보다 肯定的 反應을 보이고 있다. 즉 非師範系 學生들이 師範系 學生보다 선생을 더 “깨끗하다”, “새롭다”, “의욕적”, 이라고 보는 반면, 師範系 學生들은 선생을 보다 “보수적이다”, “방어적”, “쉽다”, “납다”, “말이 많다”, “가난하다”, “고지식하다”고 본다.

全般的으로 大學生이 선생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肯定的이지만, 그중 주로 力能이나 活動次元에서 “소심하다”, “보수적”, “방어적”, “고지식하다”, “소극적”이란 반응을 보여 多小 선생을 無氣力하고 柔弱한 存在로 보는 否定的인 印象도 갖고 있는데, 特히 男學的이나 非師範系 學生보다는 女學生, 師範系 學生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 教師像의 要因構造

教師像의 要因構造를 把握하기 爲해 varimax rotation에 의한 要因分析 結果, Eigenvalue 1以上인 要因의 數는 9개로 추출되었다. 이 9개 요인의 共通變量(common variance)은 56.8%였다. 다음의 <表-4>에서 <表-12>까지는 教師의 意味次元 및 9個 要因의 本質을 설명하는 것이다. 하나의 要因을 나타내는 問項들은 負荷量이 .10以上인 問項을 임의로 選擇하였다.

各 表의 오른쪽에 集團別로(全體, 男·女, 師範系, 非師範系) 해당 요인에 대한 要因 點數가 提示되어 있

다. 이 點數는 集團別로 그 要因에 해당되는 各 問項의 平均 點數를 合한 것이다. 이들 要因 點數와 尺度의 中央值(中間點數)와의 差異에 대한 t檢證 結果와 男·女, 師範系·非師範系 間의 要因 點數 差異에 대한 t檢證 結果도 함께 提示하였다.

〈表-4〉의 要因 1은“進取性”이라 命名한 것으로 共通變量의 25.6%, 總變量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40개의 尺度중 7개를 포함한다. 全體 學生의 要因點數와 中間點數와의 差異에 대한 有意度 檢證 結果 $p < .01$ 수준에서 意義있는 差異를 보였고, 男·女間, 系列間 要因點數 差異에 대한 t檢證 結果도 各 $p < .01$,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와같은 사실은 大學生들이 先生을 매우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보수적이며 방어적이고 고지식하며 또 약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意味하며, 特히 女學生과 師範系 學生들이 男學生이나 非師範系 學生보다 教師를 더욱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表-4〉 要因 1(進取性)의 要因負荷量과 要因點數

문항번호	문	항	부 하 량	집 단	요인점수	t 값
15	적극적	—소극적	.27	전 체	22.52	7.24**
33	대법하다	—소심하다	.21	중간점수	21.00	
12	진취적이다	—보수적이다	.19	남	21.87	3.19**
13	공격적	—방어적	.18	여	23.22	
38	융통성이있다	—고지식하다	.17	사 범	22.96	2.01*
22	강하다	—약하다	.15	비 사 범	22.10	
32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12			

* $p < .05$, ** $p < .01$

〈表-5〉의 要因 2는 “誠實性”이라 命名하였으며, 이는 共通變量의 7.7%, 總變量의 14.2%를 차지하고 있는 要因이다. 中間點數에 대한 全體 要因點數의 差를 t檢證한 結果 $p < .01$ 수준에서 有意한 差異를 보였고, 男女間 要因點數 差異에 대한 t檢證 結果도 $p < .01$ 수준에서 意義있는 差異를 보였다. 이것은 大學生이 보기에 先生은 自己 맡은 職務에 매우 誠實하게 임하고, 헌신적이며, 責任感이 强하고 良心의이며,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系列間에는 意義있는 差異를 發見 할 수 없으나 性別에 있어서는 特히 男學生이 女學生보다 이같은 경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어, 先生의 誠實性에 대한 그들의 積極적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表-5〉 要因 2(誠實性)의 要因負荷量과 要因點數

문항번호	문	항	부 하 량	집 단	요인점수	t 값
25	헌신적이다	—이기적이다	.32	전 체	17.82	15.14**
26	성실하다	—불성실하다	.28	중간점수	21.00	
27	책임감이있다	—무책임하다	.27	남	17.14	3.46**
34	양심적	—비양심적	.15	여	18.55	
3	깨끗하다	—더럽다	-.12	사 범	18.03	1.00
40	믿을수있다	—믿을수없다	.10	비 사 범	17.62	
38	융통성이있다	—고지식하다	-.10			

** $p < .01$

〈表-6〉의 要因 3은 “尊貴性”이라고 命名한 것으로 共通變量의 4.6%, 總變量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要因이다. 中間點數에 대한 全體 要因點數의 差를 t檢證한 結果 $p < .01$ 수준에서 有意한 差異를 보였으나, 男女間, 系列間의 差異는 統計的으로 意義있는 差異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같은 事實은 大學生들이 보기에 先生은 重要하고, 고맙고, 그렇고, 좋고, 가까운 尊貴한 存在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先生을 이렇게 존귀하게 보는데 있어, 性別이나 系列間에는 意味있는 差異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表-6〉 要因 3(尊貴性)의 要因負荷量과 要因點數

문항번호	문항	부하량	집단	요인점수	t 값
10	중요하다—중요하지않다	.22	전체	19.21	22.81**
7	고맙다 —고맙지않다	.22	중간점수	24.00	
8	밝다 —어둡다	.19	남	18.87	1.71
29	그림다 —지겹다	.17	여	19.58	
4	좋다 —나쁘다	.16	사범	19.21	.00
6	부드럽다—거칠다	.14	비사범	19.21	
1	가깝다 —멀다	.14			
32	친절하다—불친절하다	.12			

** p<.01

〈表-7〉의 要因 4는 “純粹性”이라고 命名한 것으로 共通變量의 4.0%, 總變量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要因이다. 中間點數에 대한 全體 要因點數의 差를 t檢證한 結果 p<.01수준에서 有意한 差를 보였다. 男女間 要因點數 差異에서도 p<.01수준에서 意義있는 差를 보이고 있으나, 系列間的 點數 差異는 有意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大學生들이 先생을 매우 깨끗하고, 순진하고, 좋은 存在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런 傾向은 系列間에는 別다른 差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性別間에는 男學生이 女學生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要因 4에 포함된 純眞하다, 깨끗하다, 좋다라는 3개의 形容詞는 모두 張東煥(1964)이 分析한 韓國語의 意味에서 매우 重要한 “評價的” 要因을 構成하는 主 內容이다.

〈表-7〉 要因 4(純粹性)의 要因負荷量과 要因點數

문항번호	문항	부하량	집단	요인점수	t 값
3	깨끗하다—더럽다	.54	전체	9.53	22.45**
			중간점수	12.00	
2	순진하다—불순하다	.28	남	9.15	3.60**
			여	9.94	
4	좋다 —나쁘다	.16	사범	9.68	1.28
32	친절하다—불친절하다	-.13	비사범	9.39	

** p<.01

〈表-8〉의 要因 5는 “自己充足性”이라고 命名한 것으로, 共通變量의 3.3%, 總變量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要因이다. 中間點數에 대한 全體 要因點數의 差를 t檢證한 結果 p<.01수준에서 有意한 差를 보였다.

〈表-8〉 要因 5(自己充足性)의 要因負荷量과 要因點數

문항번호	문항	부하량	집단	요인점수	t 값
30	만족스러운—불만족스러운 생활을한다	.38	전체	21.98	9.18**
37	부유하다 —가난하다	.25	중간점수	24.00	
31	유능하다 —무능하다	.22	남	21.09	4.24**
35	의욕적 —체념적	.16	여	22.94	
32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15	사범	22.29	1.34
40	믿을수있다—믿을수없다	-.13	비사범	21.70	
15	적극적 —소극적	-.12			
25	현신적이다—이기적이다	-.12			

** p<.01

이같은 意義있는 差異는 男·女別 要因點數間에도 $p < .01$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師範·非師範 學生間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大學生들이 선생을 만족스러운 生活을 하고, 有能하며, 친절하고, 현실적인 自己充足의인 存在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데, 이런 경향은 系列間에는 별다른 差異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性別間에는 男學生이 女學生에 비해 더욱 強하게 나타나고 있다.

〈表-9〉의 要因 6은 “明敏性”이라고 命名한 것으로, 共通變量의 3.2%, 總變量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要因인데, 9개 요인중 가장 많은 13개의 尺度를 포함한다. 따라서 明敏性을 규정하는데 몇몇 尺度가 決定的으로 影響을 미친다고 하기 보다는 여러 尺度가 複合的으로 作用하고 있다고 하겠다. 中間點數에 대한 全體 要因點數의 差를 t檢證한 結果 $p < .01$ 수준에서 有意한 差를 보였고, 또한 男女間에도 $p < .01$ 수준의 有意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大學生들이 선생을 똑똑하고, 날카롭고, 유능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런 경향은 系列間에는 별다른 差異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性別間에는 男學生이 女學生보다 더욱 強하게 나타나고 있다.

〈表-9〉 要因 6(明敏性)의 要因負荷量과 要因點數

문항번호	문	항	부 하 량	집 단	요인점수	t 값
14	똑똑하다	—어리석다	.25	전 체	32.65	23.52**
20	날카롭다	—무디다	.20	중간점수	39.00	
31	유능하다	—무능하다	.18	남	31.84	3.12**
9	귀하다	—천하다	.18	여	33.52	
25	현실적이다	—이기적이다	-.14	사 범	32.89	.84
10	중요하다	—중요하지않다	.14	비 사 범	32.43	
16	정신적	—육체적	.14			
36	자존심이강하다	—자존심이없다	.13			
29	그렵다	—지결다	-.12			
33	대범하다	—소심하다	-.12			
37	부유하다	—가난하다	.12			
5	옳다	—그르다	.12			
40	믿을수있다	—믿을수없다	.11			

** $p < .01$

〈表-10〉의 要因 7은 “迅速性”이라고 命名한 것으로, 共通變量의 3.0%, 總變量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要因이다. 이 要因에 가장 큰 負荷를 보인 “빠르다—느리다”문항은 Tanaka, Oyama, Osgood(1963)이 14變의 日本語 추상명사에 대하여 要因分析한 結果, 重要 要因으로 들어난 力能(potency)要因에서도 큰 負荷를 보인 形容詞이다. 中間點數에 대한 全體 要因點數의 差를 t檢證한 結果, $p < .01$ 수준에서 有意한 差異를 보였고, 또한 男·女間에도 $p < .01$ 수준에서 意義있는 差異를 보였다. 이것은 大學生들이 선생을 빠르고, 이

〈表-10〉 要因 7(迅速性)의 要因負荷量과 要因點數

문항번호	문	항	부 하 량	집 단	요인점수	t 값
21	빠르다	—느리다	.57	전 체	18.62	13.22**
19	이르다	—늦다	.19	중간점수	21.00	
40	믿을수있다	—믿을수없다	-.13	남	18.01	3.63**
32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12	여	19.28	
7	고맙다	—고맙지않다	-.11	사 범	18.90	1.54
24	활발하다	—둔하다	.11	비 사 범	18.36	
23	새롭다	—낡다	.10			

** $p < .01$

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경향은 系列間에는 별다른 差異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性別間에는 男學生이 女學生보다 더 強하게 나타내고 있다.

〈表-11〉의 要因 8은 “複雜性”이라고 命名한 것으로, 共通變量的 2.9%, 總變量的 3.0%를 차지하고 있는 要因이다. 이 要因에 가장 큰 負荷를 보인 “복잡하다—간단하다”, “어렵다—쉽다” 문항은 張東煥(1964)의 研究에서 韓國語의 特異한 要因으로 나타난 “精神의 一思辨的 要因”을 構成하는 매우 重要한 내용이다. 中間點數에 대한 全體要因 點數의 差를 t檢證한 結果 $p < .01$ 수준에서 有意한 差異를 보였으나, 性別, 系列間에는 有意한 差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性이나 系列를 不分하고, 大學生들이 선생을 복잡하고, 어려운 存在로 보고 있음을 뜻한다.

〈表-11〉 要因 8(複雜性)의 要因負荷量과 要因點數

문항번호	문항	부하량	집단	요인점수	t 값
17	복잡하다 — 간단하다	.41	전체 중간점수	10.68 12.00	12.00**
18	어렵다 — 쉽다	.37	남 여	10.58 10.79	
22	강하다 — 약하다	.12	사 범	10.55	1.18
21	빠르다 — 느리다	.10	비 사범	10.80	

** $p < .01$

〈表-12〉의 要因 9는 “信義性”이라고 命名한 것으로, 共通變量的 2.6%, 總變量的 2.4%를 차지하고 있는 要因이다. 이 要因에 가장 큰 負荷를 보인 “믿을수 있다—믿을수 없다” 문항은 이 要因 이외에도 4개의 要因에 作用하고 있음을 볼 때, 教師像을 決定하는데 있어 이 문항이 매우 重要한 내용이 됨을 알 수 있다. 中間點數에 대한 全體要因 點數의 差를 t檢證한 結果, $p < .01$ 수준에서 有意한 差를 보였고, 또한 男女間 差異도 $p < .01$ 수준에서 意義있는 差異로 나타났다. 이것은 大學生들이 선생을 믿을 수 있고, 친절하며, 성실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런 경향은 系列間에는 별다른 差異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性別間에는 男學生이 女學生보다 더 強하게 나타내고 있다.

〈表-12〉 要因 9(信義性)의 要因負荷量과 要因點數

문항번호	문항	부하량	집단	요인점수	t 값
40	믿을수 있다—믿을수 없다	.41	전체	28.60	5.60**
32	친절하다 — 불친절하다	.27	중간점수	30.00	
39	용감하다 — 비겁하다	.23	남	27.93	2.73**
38	융통성이 있다—고지식하다	.21	여	29.32	
30	만족스러운—불만스러운 생활을한다—생활을한다	-.17	사 범	28.95	1.32
22	강하다 — 약하다	-.17	비 사범	28.27	
7	고맙다 — 고맙지않다	-.15			
33	대범하다 — 소심하다	.14			
26	성실하다 — 불성실하다	-.11			
13	공격적 — 방어적	-.10			

** $p < .01$

以上の 9個 要因이 차지하는 總變량은 56.8%이며, 이 총변량의 55%를 제1요인인 “進取性” 要因이, 14.2%를 제2요인인 “誠實性” 要因이 차지하여 이 두 要因이 總變량의 2/3가 넘는 69.2%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7個 要因들은 모두 各 6% 以下의 變량을 차지하고 있을 뿐으로, 본 연구대상 學生들의 先生像에는 進取性和 誠實性 要因—특히 進取性 要因이 絶對적으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렇게 큰 比重을 차지하는 요인중, 誠實性에서는 肯定的인 선생像을 보이고 있으나, 進取性에서는 否定的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Ⅳ. 論 議

1. 全體的으로 大學生이 갖고 있는 教師像은 肯定的인 것으로, 先行의 研究에서 高校生(朴慶淑, 1974), 教師 自身(金琪正, 1976), 그리고 一般社會人(尹鍾健, 1976)들이 갖는 教師像과 一致한다.

先行 研究(朴慶淑, 1974, 金琪正, 1976)들과 同一하게 肯定的인 반응을 보인 主要 問項은 “깨끗하다”, “옳다”, “중요하다”, “믿을수 있다”등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소심하다”, “고지식하다”, “보수적이다”등이다. 한편 “용감하다—비겁하다”, “새롭다—낡다”라는 尺度는 그 반응이 모두 중간점에 근사하게 위치하므로, 이들이 교사상을 把握하는데 적절한 기준이 못됨을 알 수 있다.

2. 大學生의 性別에 따른 教師像은 男學生이 女學生에 비해 훨씬 강하게 肯定的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高校生을 對象으로한 研究(朴慶淑, 1974) 結果와 相反되는 것이다. 標集 對象이 同一하지 않고, 時期 또한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까닭을 명확히 規明하기에는 客觀的인 根據가 不充分하나, 이것은 標集 時期 보다 는 오히려 標集 對象의 特性, 즉 高校生은 標集 當時 直接 教師와 같은 접촉을 하고 있는 처지 에서 反應한 것이었고, 大學生은 주로 自身의 過去 經驗에 비추어 知覺한 것이었기에 招來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은 보다 치밀한 연구 design에 의해 수행된 추후의 연구결과에 터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大學生의 系列別에 따른 教師像은 非師範系 學生이 師範系 學生에 비해 보다 肯定的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教師 養成을 위한 專門 教育을 담당하고 있는 師範·教職教育 關係者들에게 진지한 自己 反省을 促求하는 하나의 結果라고 할 수 있다. 教師는 학생을 가르치는데 必要한 專門 知識이나 잘 가르치기 위한 教授法만으로 最大限의 教育效果를 期待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教職에 의 強 意과 自信을 바탕으로 가르치고자하는 熱誠어린 態度가 더 重要한 구실을 할 것이다. 따라서 現行의 教師教育 課程에서는 담당한 教育內容에 대한 專門의 知識이나 技術 뿐만 아니라, 教職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태도와 자제를 키울수 있는 諸般 프로그램을 마련 運營하여야 할 것이다. 未來 教育의 主導的인 役割을 감당할 豫備 教師들이 소극적인 教師像을 갖는 것은 教育力의 強化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 不 現象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女大生의 教師像이 남학생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점과 아울러 더욱 注目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現在 우리나라의 경우 初等教育에 이어 中等教育에서까지 教職의 女性化 傾向이 漸增하고 있는 實情에서, 소극적인 教師像이 教育의 全般的인 機能에 끼치게 될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이는 결코 소홀히 취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 大學生이 갖고 있는 教師像의 要因構造는 “進取性”要因, “誠實性”要因, “尊貴性”要因 等 9個의 要因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이중 “進取性”要因과 “誠實性”要因이 各 各 總變量의 55%, 14.2%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두 要因의 說明力은 全體의 69.2%나 된다. 이와같이 力能과 活動이 強調된 要因(進取性)이 倫理·道德의 評價가 強調된 要因(誠實性)보다 큰 比重을 갖는 構造의 特徵은 教師를 對象으로한 金琪正(1976)의 研究 結果와는 一致하며, 高校生을 대상으로한 朴慶淑(1974)의 研究 結果와는 相反되는 것이다.

한편 主要 要因別 反應 傾向을 보면, 大學生들은 進取性 要因에서는 教師에 否定的인 反應을 나타내고 있으나 誠實性 要因에서는 肯定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結果는 위 두가지 要因 모두에 肯定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는 朴慶淑(1974)의 研究 結果와는 多少 差異가 있으나, 一般人을 對象으로한 河甲洙(1974)의 研究와, 教師 自身과 國民學生을 對象으로한 金忠幸(1975)의 研究 結果와는 一致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大學生이 갖는 教師像의 要因構造와 그 反應 경향을 보면, 그들은 教師를 볼 때 우선 力能이나 活動에 가장 큰 比重을 두고 評價하고 있으며, 또한 教師를 사람됨이나 倫理·道德의 側面에서는 믿을수 있으나 職務 遂行이나 對 社會的인 活動에서의 力能이나 積極性에서는 크게 期待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V. 結 論

本 調査 研究의 結果에 據하여 몇가지 結論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大學生이 갖고 있는 教師像은 全般的으로 肯定的이나, 그 지지 정도는 다소 中立的이어서 鮮明하지 않다. 部分的으로 活動, 力能 次元에서는 否定的인 경향도 보이고 있다.

둘째, 大學生의 性別에 따른 教師像은 男學生이 女學生에 비해 훨씬 강한 肯定的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세째, 大學生의 系列別에 따른 教師像은 非師範系 學生이 師範系 學生보다 다소 肯定的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네째, 大學生이 갖는 教師像의 要因構造는 “進取性”과 “誠實性”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진취성에는 부정적인 경향을, 성실성에는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다디로 大學生에게 비쳐진 教師의 이미지는 全體的으로 肯定的이나 윤리·도덕적인 면에서는 보다 肯定的인 方向에서, 活動·力能면에서는 多少 否定的인 方向으로 評價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男學生이나 非師範系 學生보다는 女學生이나 師範系 學生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教育活動에서 教師의 位置는 매우 重要하다. 그러한 教師가 敎職에 대해 自負心을 갖고 教育에 임할때 그 効果가 커질것은 當然하다. 教師의 敎職에 대한 自負心을 決定하는데 教師 스스로의 努力도 重要하지만, 주위에서 그러한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客觀的인 與件 마련과 함께 그들에게 積極的으로 보여주는 認識이나 期待 또한 必要한 것이다. 더욱이 學生중 그것이 教師가 직접 다루는 對象은 아니라 하더라도, 大學生으로부터의 積極적·肯定적 기대는 매우 重要하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들중에는 未久에 直接 敎職에 進出하여 教育現場을 主導해 나갈 예비교사도 있을 것이며, 또한 自身들의 子女教育에 至大한 관심을 갖게 될 學父母의 입장에 설 사람도 있어, 이들 모두가 教師 役割을 決定짓는 主要 環境으로서 作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점을 고려할 때, 本 研究 結果는 그 標集이 한국의 전체 大學生을 代表하기에는 充分치 못하고, 또한 이러한 이미지를 지니는 教師들이 實際 敎職 活動을 어떻게 遂行하고 있는지를 심층 분석한 相關研究 結果를 綜合해서 檢討해야 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대로 一般化하기에는 慎重을 기할 必要는 있으나, 보다 客觀的인 教師像 樹立을 爲한 現實的 資料로서 重要的 示唆가 되리라고 본다.

參 考 文 獻

1. 金琪正, 意味辨別方法에 의한 教師의 自我像 分析, 연구노우트, 5-11 韓國行動科學會, 1976.
2. 金忠幸, 授業能力에 對한 國民學校教師 및 學生들의 反應分析, 仁川教育大學 論文集, 10, 1975.
3. 朴慶淑, 意味辨別法에 의한 “선생”의 이미지 測定, 韓國教育, 1-2, 韓國教育開發院, 1974.
4. 朴容憲, 學校社會, 서울:培英社, 1971.
5. 吳天錫, 스승, 서울:培英社, 1972.
6. 尹鍾健, 韓國人の 教師觀과 學生觀, 연구노우트, 5-8, 韓國行動科學研究所, 1976.
7. 尹鎬允, 韓國語 形容詞의 好惡度 測定, 서울大 文理大學報, 1970.
8. 張東煥, 韓國語의 意味論的 構造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 論文集, 1964.
9. 鄭宇鉉, 敎員의 地位와 役割, 現代社會와 敎員, 서울시教育委員會, 1982.
10. 崔正薰, 敎員 效率性 基準에 관한 研究, 教育論集,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1970.
11. 河甲洙, 韓國企業人에 대한 社會的 評價의 意味論的 分析, 釜山 教育大學 研究報告, 10-1, 1974.

12. 黃應淵, 敎員의 敎職意識에 관한 研究, 서울:大韓敎育聯合會, 1983.
13. Brookerber, J.S. *History of the Problems of Education*. New York:McGraw-Hill, 1956.
14. Nie, N.H. et al.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nd Ed., New York:McGraw-Hill, 1975.
15. Osgood, C.E., Suci, G.J., & Tannenbaum, P.H.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Univ. of Illinois Press, 1957.